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엮음, 아카이브 북스, 2011)

윤 은 하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은 사진 아카이브 연구소가 2010년과 2011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주간’(인문학대중화사업)의 <지역아카이브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일부로 출판한 책이다. 이 사업은 근현대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진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라져가는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는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마을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다양한 기억들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보존함으로써 사진을 통해 공동 기억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크게 서울과 논산, 홍성 등의 세 지역의 기억을 다루고 있다. 첫째, 서울(“삶의 터전/기억의 고고학”)에서는 서울의 도봉구와 서대문구의 독립운동가와 예술인, 성미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삶의 이야기와 사진 등을 실고 있으며, 둘째, 충남 논산(“논산의 재발견”)에서는 그 지역의 현대사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건물, 골목길과 계단, 학교와 가게 등 논산의 일상을 구성했던 다양한 기억의 장소의 이미지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홍성(“농촌청소년들의 삶의 지혜와 행복 찾기”)에서는 홍동 풀무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담은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마을 아카이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는 책을 읽으며, 이들이 발굴해낸

기억의 장소와 인물들, 오랜 골목과 건물들, 혹은 이제는 변해버린 옛 집터 사진들을 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잃어버린 공동기억과 마을에 관한 묘한 노스탤지어를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기억의 장소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현재 기록학계에서 논의되는 기억과 공동체적 관점에서 기술된 전문 학술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기억공동체와 인문적 삶—지역아카이브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실천적 결과물들로, 학생들과 지역주민, 친지들이 지역을 탐방하며,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생산해 낸 일종의 지역탐방 출판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사진아카이브연구소를 운영한 저자는 사진이 기억의 저장소로 아카이브의 핵심이며 한 지역에서 생산된 사진을 통한 아카이브의 구축이 지역공동체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사진 아카이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로, 사진기록이 가지는 가치를 재조명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시기적절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즉, 연구프로젝트의 진행과정과 참가자의 구체적 경험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독자들이 프로젝트의 취지와 성과에 관해 실질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하지 못한다. <인문주간>의 시도가 단순한 지역탐방을 넘어서 세대 간 공통 기억의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실제 참가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의 기술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과 계기에 대한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목소리가 있었다면, 사진 아카이브의 의미가 더욱더 설득적으로 독자들에게 와 닿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천개의 기억, 천개의 마을’이 각 지역에 준

재하는 다양한 공간과 기억을 사진에 담아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서 사진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진 기록이 단순히 개인의 회상이나 과거 행정적 증거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연대의식을 이끌어내고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억의 저장소로서 지역사회에서 아카이브의 본질과 역할을 새로이 조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